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현황 및 분석

오세란*

국문초록

본고는 2018년 현재 약 36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아동청소년 도서 선정 현황 및 결과를 분석했으며 특히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징인 대중성 및 공동체 지향성과 도서 선정과정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첫째 아동도서 장르는 동화가 최다 선정되고 그림책 선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시 장르와 교양서는 배제되었다. 청소년도서는 문학서와 교양서가 모두 선호되어 교육적 목적이 나타났다. 둘째 작가와 작품의 선정횟수로 볼 때 최근 동화 장르 선정은 작가와 작품 모두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청소년소설과 교양서는 소수의 작가, 작품에 집중되었다. 셋째 운동의 취지는 주제의식이 뚜렷하고 토론이 가능한 도서를 선정하는 근거로 작용하며 청소년교양서의 주제는 인문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 넷째 선정도서의 출간연도의 분석 결과 신간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출판사는 대형 출판사의 책이 주로 선정되었다.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책 한 권’과 ‘대규모 행사’라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을 벗고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한 책 한 도시 운동, 한 책 읽기 운동,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대중성, 공동체지향성

* 청주교육대학교, bookyoh@hanmail.net

목차

1. 서론	3) 2016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2.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황과 선정과정	4) 2017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1)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황	5) 2018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2) 운영주체와 선정과정	4.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결과 분석
3.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	1) 장르인식의 대중성과 교육성
1)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2) 작가와 작품의 다양성과 편중성
2) 2015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3) 도서선정의 주제 문제
	4) 선정도서의 출간연도와 출판사의 문제
	5. 결론

1. 서론

아동청소년문학은 독자가 문학교육이나 독서교육의 장에서 텍스트를 접하는 사례가 많으며 공교육 뿐 아니라 도서관이나 민간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의 사회교육의 장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독자가 책과 만나는 다양한 독서 현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2018년 현재 전국 약 36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이하 한 책 읽기운동)¹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한 책 읽기운동은 일본에서 시작된 ‘아침독서운동’, 영국에서 시작된 ‘북 스타트’와 함께 미국에서 출발한 대중독서 프로그램이며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대중독서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아동의 독서습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아침독서운동이나 북 스타트와 달리 미국의 한 책 읽기운동은 본래 성인독자를 중심으로 시작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도서 선

1 이 운동의 본래 명칭은 ‘한 책, 한 도시’이나 최근 운영주체가 시 차원이 아닌 광역시의 ‘구’ 단위, 도서관 단위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 책 읽기운동’으로 범칭하고자 한다.

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 책 읽기운동에서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목록은 문학과 독서교육의 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며 출판시장에서 파급효과도 크지만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의 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중독서사업에서 어떤 도서가 추천되는지 결과를 공유하고 의미를 분석해보는 연구는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한 책 읽기운동은 대중독서운동이며 책을 함께 읽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대중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의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서 선정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 두 가지 특징과 도서선정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책을 함께 읽고 공유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연대의 힘을 갖는 과정이다. 한 권의 책으로 계층 간,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²와 같은 특정한 목표가 도서 선정 전반과 아동 독자의 독서경험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책 읽기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윤정옥은 주로 한 책 읽기운동이 처음 시작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³ 또한 윤정옥은 미국의 한 책 읽기운동에 선정된 책

2 김광모,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로 거듭난 구미」, 월간 《공공정책》 127, 한국자치학회, 2007, 69면.

3 윤정옥,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45-66면. 윤정옥,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0년과 ‘한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한국문헌정보학회, 2017, 45-64면.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171-194면.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 47-68면.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5-27면.

한편을 집중 분석하기도 하였다.⁴ 이용재는 한국의 한 책 읽기운동을 도서관 정책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⁵ 우윤희와 김종성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한 책 읽기운동에 선정된 도서를 정리하였으며 이 연구에는 해당 기간에 선정된 아동청소년 도서 검토도 포함되어 있다.⁶ 그밖에 한 책 읽기운동을 시행한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보고한 글도 찾을 수 있다.⁷

선행연구를 보면 알 수 있듯 한 책 읽기운동에서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만을 따로 다룬 논문은 발표된 바 없다. 본고는 2장에서 한 책 읽기운동의 현황과 작품선정 절차를 살펴보고 3장에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도서 선정결과를 우윤희와 최종성의 논문을 토대로 살펴본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근 상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를 재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정된 도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최근 양상을 추적해보려 한다. 본론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삼는 대중독서운동에서 추구하는 목적성이 문학, 출판, 독서의 장에 어떻게

4 윤정옥, 「한 권의 책으로서 『앵무새 죽이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115-133면. 윤정옥, 「한 권의 책으로서 『화씨 451』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185-208면.

5 이용재,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9, 5-23면.

이용재, 「한국 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발보논집』 14,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 121-143면.

6 우윤희, 김종성,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309-336면.

7 김광모, 「한책 하나 구미 운동 :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로 거듭난 구미」, 월간 《공공정책》 127, 한국자치학회, 2016, 69-71면. 최성일,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과 인천」, 《황해문화》 45, 새얼문화재단, 2004, 370-375 면.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한국문헌정보학회, 2008, 63-81면.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전략-원북원 부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9(3), 2008, 247-265면. 조찬식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201-221면.

연계되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한 책 읽기운동의 현황과 선정 과정

1) 한 책 읽기운동의 현황

한 책 읽기운동은 1998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시애틀 공공도서관 워싱턴 도서관센터가 시작한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지역사회 대중독서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독서운동이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라는 이름을 갖고 자리매김한 것은 시카고 시와 관내 78개 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읽기를 시도한 데서 유래한다.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카고 시민들이 인종문제를 주제로 한 『앵무새 죽이기』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높여 나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또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다.⁸ 미국의 한 책 읽기운동에서 선정된 대표적인 도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17 개 이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14 권⁹

1.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원제 To Kill a Mockingbird)픽션
2. 연을 쫓는 아이(할레드 호세이니, 원제 The Kite Runner) 픽션

8 윤정옥,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45-66면.

9 윤정옥 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조은글터, 2013, 참조.

3. 화씨 451(레이 브래드버리, 원제Fahrenheit 451) 픽션
4. 옥토버 스카이(호머 히캠, 원제 Rocket Boys(October Sky) 논픽션
5. 죽음 앞의 교훈(어니스트 헤인스, 원제 A Lesson before Dying) 픽션
6.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미치 앨봄, 원제 Tuesday with Morie) 논픽션
7. 빈곤의 경제(바바라 에런라이크, 원제 Nickel and Dimed :On(Not) Getting By in America) 논픽션
8.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마크 해던, 원제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픽션
9. 작은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트레이시 키더, 원제 Moutains Beyond Moutains) 논픽션
10. 나를 부르는 숲(빌 브라이슨, 원제 A Walk in the Woods) 논픽션
11. 위대한 개츠비(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원제 The Great Gatsby) 픽션
12. 트레버 (캐서린 라이언 하이드, 원제 Pay It Forward) 픽션
13. When the Emperor Was Divine (줄리 오즈카) 픽션
14. 컬러 오브 워터 (제임스 맥브라이드, 원제 The Color of Water) 논픽션

미국의 선정도서를 보면 성인 대중 독자가 함께 읽기에 적절하고 문학적성을 갖춘 성장소설이나 논픽션 교양도서가 집중적으로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종문제나 빈부 격차를 주제로 다룬 책이 많아 미국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레버』는 만약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세 사람이 각자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를 줄거리로 삼은 청소년소설로 개인과 사회의 역할을 토론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참고로 2차 대전 후의 상황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When the Emperor Was Divine』 외에 모든 책은 한국에 번역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책 읽기운동은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대중독서운동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충남 서산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해 전남 순천에서도 시행하였다. 이후 부산, 원주 등 여러 도시로 이어져 현재 약 36개 단체에서 ‘한 책 읽기’라는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¹⁰ 특히 한 책 읽기운동의 긍정적 가치는 관변 단체의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에 있다. 한 책 읽기운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일방적 행사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선정 후 행사까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다.

우리나라의 한 책 읽기운동의 특징은 아동청소년도서를 따로 선정하여 독서운동을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책 읽기운동의 어린이 참여가 참여 인원은 쉽게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책 읽기운동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동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한 책’ 읽기에 동참할 권리와 지역사회의 의제를 토론하는 데 동참하고 즐길 권리가 있지만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 책 읽기운동이 시작된 만큼 추가적인 아동청소년 한 책 읽기운동은 본래 목적인 성인독서운동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주의해야 점은 본래 성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하면서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책 읽기운동의 아동청소년 도서 선정 과정부터 결과까지 구체

10 조찬식,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문헌정보학회지』47(2), 한국문헌정보학회, 205면 참조.

11 우윤희, 김종성, 앞의 논문, 330면 참조.

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2) 운영주체와 선정과정

한 책 읽기운동은 지방자치단체나 자발적인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꾸러지기에 책 한 권을 정해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는 같아도 그 모양새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운동의 운영 주체 즉 주관단체부터 다른데 가령 강원도 원주는 2004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와 원주투데이 신문이 개최를 시작하였고 원주시 원주 교육청, 원주평행교육정보관이 행사를 후원하였다. 이듬해 원주시와 원주시립도서관, 원주 교육지원청, 원주교육문화관, 《원주투데이》 등이 모여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¹² 서울은 ‘책 읽는 서울’을 제목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서울지역공공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최근에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는 명칭으로 운영된다.¹³ 지원단체나 후원단체는 지역사회에 조직되어 있는 문학단체나 시민단체,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모임을 갖는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지역모임, 각 지역 어린이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도서관이 선정되면 선정도서를 출간한 출판사도 행사를 일부 지원한다.

한 책 읽기운동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하므로 책 선정과정이 중요하다. 책 선정과정은 주로 공공도서관 온라인 게시판에 추천을 받거나 도서관에서 직접 추천을 받은 후 시민 추천도서와 심의위원들의 추천도서를 합하여 심의위원이 결과를 도출한다. 일례로 충남 공주는 시립도서관방문,

12 최예린, 박수현, 오윤주, 「같은 책 읽고 시민 소통, ‘한 책 한 도시’ 운동 확산」, 《한겨레신문》, 2016. 3. 2. 최성일, 앞의 글, 370-375면 재인용.

13 최성일, 앞의 글, 372-373면.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시민 추천을 받은 후 전문가와 문인, 독서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권의 후보도서로 압축한 뒤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별 한 권씩 총 2권의 책을 대표도서로 선정해 발표한다.¹⁴ 경북 구미는 매년 초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전 시민으로부터 후보도서를 추천받은 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도서 5권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매년 3월 후보도서에 대한 시민투표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올해의 책을 선정한다.¹⁵ 2006년 9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시작한 충북 청주는 시민들이 ‘책 읽는 청주’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읽고 싶은 책 50~70권을 추천하면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5권으로 압축한다. 이들 책 5권의 대표 추천인들이 청주 지역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선정 이유 등을 시청자에게 유세하면 청취자 투표, ‘책 읽는 청주’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거쳐 3권으로 압축하고 이를 다시 추진위원회가 토론·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¹⁶

2011년부터 시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책 독서운동은 도서관 사서, 독서동아리, 시민들이 추천한 200여 권의 책을 도서관 사서들의 투표로 최종 4권의 후보작을 선정하면 100명의 시민 ‘한 책 추진단’이 4권을 모두 읽고 토론을 하여 올해의 책 한 권을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도서는 아동들이 직접 뽑는다. 2017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8개교, 도서관 8개관¹⁷이 참여하여 도서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

14 양한우, 「공주시시립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 추진」, 《대전일보》, 2018년 2월 6일.

15 김광모, 앞의 글, 70면.

16 최예린, 박수혁, 오윤주, 「같은 책 읽고 시민 소통, ‘한 책 한 도시’ 운동 확산」, 《한겨레신문》, 2016년 3월 2일, 최성일, 앞의 글, 370-375면 재인용.

17 함께 한 초등학교는 길음초, 동신초, 석계초, 송래초, 송인초, 장곡초, 정덕초, 청덕초이며 함께한 도서관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석관동미래내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정릉도

여러 지역의 선정과정을 정리해보면 시민들의 직접 추천과 사서, 교사, 교수, 독서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위원 회의라는 2단계 절차가 대표적인 선정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도서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토론을 벌이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도서의 최종 선정단계에서 성인 책과 아동청소년책의 선정위원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선정위원이 모여 성인 책과 아동청소년도서를 함께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문학이나 독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아동청소년도서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책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다수와 아동, 청소년도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소수가 동시에 선정에 참여하게 된다. 아동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의 인적 구성은 책 선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청소년도서 선정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이나 단체 별로 한 책 읽기 도서 선정 기준도 있는데, 가령 경남 울주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와 있는 한 책 읽기 선정도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 작가를 우선으로 한다.
- ② 작가와의 만남, 토론, 각종 문화행사로 활용이 가능한 책으로 한다.
- ③ 독서수준의 격차 없이 일반인이 공감하고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한다.
- ④ 신간 도서 위주로 하며,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책으로 한다.¹⁸

이러한 기준은 경남 울주의 기준이지만 한 책 읽기운동의 선정도서

서관, 중앙동새날도서관, 청수도서관, 해오름도서관, 글빛누리작은도서관이다. 출처 성북구립도서관 블로그 <https://sblib.tistory.com/654>

18 울주 통합도서관 누리집 <https://uljilib.ulju.ulsan.kr>

결과를 볼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 ‘한국 작가 우선 기준’은 한국의 출판 상황과 독자의 공감을 고려한 것 ②는 선정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한 기준 ③은 책의 난이도와 독서모임이나 토론을 위한 지침 ④는 도서구입의 편리성을 배려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타당성과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한 책 읽기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

1)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약 31개 지역에서 선정한 전체 도서는 총 465권 353종이다. 이중 아동청소년도서와 성인도서를 통틀어 가장 많이 선정된 작품은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총 11회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두근두근 내 인생』(9회), 『엄마를 부탁해』(8회), 『연어』(6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6회)가 선정되었다. 아동청소년문학 작품은 『너도 하늘말나리야』, 『완득이』, 『책만 보는 바보』가 각각 5회 선정되었다.¹⁹

이것을 아동청소년 도서만 따로 분류해보면 작품이 여러 번 선정되어 선정 작품의 종수와 선정횟수가 모두 높은 작가는 황선미, 이금이, 김려령이다. 이들은 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모두 쓰는 작가들이다. 다음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5회 이상 선정된 아동청소년문학 작가를 정리한 것이다.

19 우윤희, 김종성, 앞의 논문, 319면.

[표 1] 2003년~2014년 5회 이상 선정된 아동청소년문학 작가 및 주요 작품²⁰

작가	주요 작품	선정횟수	작품수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외	18	8
이금이	너도 하늘말나리야 외	13	6
김려령	완득이 외	14	5
유은실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외	5	5
안소영	책만보는 바보	5	1

가장 여러 번 선정된 작가들의 ‘한 책’도서를 보면 황선미의 경우 『마당을 나온 암탉』 외 7종은 한번 씩만 선정되었고, 『마당을 나온 암탉』이 11회 선정되었다. 반면 이금은 이혼 가정 아이의 성장을 그린 『너도 하늘말나리야』와 이 작품의 후속작인 『소희의 방』, 유아 성추행과 그 이후 과정이 달랐던 두 아이의 성장을 그린 『유진과 유진』 등이 골고루 선정되었다. 김려령 역시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완득이』, 도벽을 가진 아이의 성장을 다룬 『가시고백』, 아이의 자살 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우아한 거짓말』 등이 골고루 선정되었다. 유은실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외 4종이 선정되었다. 청소년교양서를 쓰는 안소영의 『책만보는 바보』는 해당 책 한권이 5회 선정되었다.²¹

2) 2015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²²

2015년에는 총 15개 지역에서 아동청소년도서를 선정하였으며 동화

²⁰ 우윤희, 김종성, 위의 논문, 323면.

²¹ 우윤희, 김종성, 위의 논문, 323면.

²² 3장의 2), 3), 4), 5)절의 2015년- 2018년 아동청소년도서 선정현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 독서인 홈페이지(www.readin.or.kr) 게시판에 등재된 선정도서 현황을 정리했음을 밝힌다.

10편, 청소년소설 6편, 청소년교양서 5편, 그림책 2권이 선정되었다. 청소년도서의 경우 문학 분야와 비문학(교양서) 분야가 거의 비슷한 수로 선정되어 양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표 2] 2015년 아동청소년 선정도서 현황

선정 지역	아동 청소년 도서	갈래	작가	출간 연도	출판사
울주	껌 줌 떼지 뭐	동화	양인자	2014	샘터
	조커와 나	청소년소설	김중미	2013	창비
서산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동화	김려령	2011	문학동네
안산	수상한 아파트	동화	박현숙	2014	북멘토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청소년소설	고정옥	2014	애플박스
서귀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청소년교양	최재천	2001	효형출판
양주	해리네 집	동화	백승자	2012	청개구리
서울	김치도 콩치도아닌 정치	청소년교양	임정은	2014	다른
관악구	감자이웃	그림책	김윤이	2014	고래이야기
용인	고양이야, 미안해!	동화	원유순	2011	시공주니어
구미	멋지기 때문에 놀러 왔지	청소년교양	설흔	2011	창비
포항	시인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부천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청소년소설	고정옥	2009	애플박스
서울특별시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싱커	청소년소설	배미주	2010	창비
	성, 스러운 그녀	청소년소설	감지영 외	2012	우리학교
	학교 가기 싫은 날	동화	김기정	2014	현암사
	도토리 사용 설명서	동화	공진하	2014	한겨레 아이들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동화	윤혜숙	2014	사계절

선정 지역	아동 청소년 도서	갈래	작가	출간 연도	출판사
	위를 봐요	그림책	정진호	2014	은나팔
	달려 토토	그림책	조은영	2011	보림
대전	시인 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김해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동화	황선미	2014	비룡소
청주	시간을 파는 상점	청소년소설	김선영	2012	자음과모음
원주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도서관	동화	김혜연	2011	비룡소

3) 2016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2016년에는 총 18개 지역에서 아동청소년도서를 선정하였으며 동화 10편, 한국청소년소설 6편, 외국 청소년소설 1편, 청소년 교양서 7편, 동시집 1편, 그림책 3편이 선정되었다. 2016년에도 청소년도서의 경우 청소년교양서와 청소년소설이 동수로 양분된 양상을 보이며 외국 청소년소설과 동시집의 선정이 눈에 띈다.

[표 3] 2016년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

선정 지역	아동 청소년 도서	갈래	작가	출간 연도	출판사
인천 계양	박지원, 열하로 배낭여행을 떠나다	청소년교양	김경윤	2014	탐
충주	글자 동물원	동시	이안	2015	문학동네
울주	10대, 지금의 고민이 널 성장시켜 줄 거야	청소년교양	김경민	2014	글담출판
	보물섬의 비밀	동화	유우석	2015	창비
서산	시인 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선정 지역	아동 청소년 도서	갈래	작가	출간 연도	출판사
광양	시인 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안산	나쁜 어린이표	동화	황선미	1999	웅진주니어
	오즈의 의류수거함(유영민, 2014)	청소년소설	유영민	2014	자음과모음
의정부	평화의 소녀상	그림책	윤문영	2015	내인생의책
서귀포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청소년교양	최한중	2014	사계절
양주	우리 집 괴물 친구들	동화	박효미	2013	사계절
서울 관악구	시인 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우리 집엔 할머니 한 마리가 산다	그림책	송정양	2015	상상의집
대구	시간을 파는 상점	청소년소설	김선영	2012	자음과모음
군포	뽕덕(배유안, 창비, 2014)	청소년소설	배유안	2014	창비
구미	모두 갇힌(김중미, 창비, 2015)	청소년소설	김중미	2015	창비
부천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동화	임지윤	2014	창비
	나는 귀머거리다	만화	라일라	2015	서울문화사
서울특별시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동화	황선미	2014	사계절
	기억전달자	(외) 청소년소설	로이스 로리	2007	비룡소
	오늘의 할 일 작업실	청소년소설	김혜진	2011	자음과모음
	시인 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돌 씹어먹는 아이	동화	송미경	2014	문학동네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동화	임지윤	2014	창비
	슈퍼거북	그림책	유설화	2014	책읽는곰
	7년 동안의 잠	그림책	박완서글 김세연 그림	2015	어린이작가 정신
김해	여름이 반짝	동화	김수빈	2015	문학동네
순천	열일곱 살의 인생론	청소년교양	안광복	2010	사계절
	멀쩡한 이유정	동화	유은실	2008	푸른숲
원주	소리 질러, 운동장	동화	진형민	2015	창비

4) 2017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2017년에는 총 20개 지역에서 아동청소년도서를 선정하였으며 갈래별로 보며 동화 16편, 청소년소설 6편, 청소년교양서 3편, 그림책 3편 그리고 만화 3편을 선정하였다. 이 해에는 학습만화 2편과 인권만화 1편 등 만화 분야를 선정한 점이 주목된다.

[표 4] 2017년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

선정 지역	아동 청소년 선정도서	갈래	작가	출간연도	출판사
인천계양	사라진 산	동화	김일광	2016	봄봄
충주	나는 나의 주인	동화	채인선	2010	토토북
울주	공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까?	청소년교양	김미성 외	2016	꿈결
	마트로 가는 아이들	동화	박현숙	2016	살림어린이
서산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광양	별을 사랑한 시인 윤동주	어린이교양	소중애	2016	꿈터
안산	시간 가게	동화	이나영	2013	문학동네
의정부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1	만화	설민석	2017	아이휴먼
목포	뽕치 고 박차고	청소년소설	장정희	2015	우리학교
	푸른사자 와니니	동화	이현	2015	창비
양주	욕시험	동화	박선미	2009	보리
	시인 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공주	삼백이의 칠일장1	동화	천효정	2014	문학동네
양산	모두 잠언	청소년소설	김중미	2015	창비
서울	그 나무가 웃는다	동화	손연자	2016	시공주니어
관악구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청소년소설	김이윤	2012	창비
군포	노잣돈 값기 프로젝트	동화	김진희	2015	문학동네

선정 지역	아동 청소년 선정도서	갈래	작가	출간연 도	출판사
익산	시인동주	청소년교양	안소영	2015	창비
용인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동화	최은옥	2017	주니어 김영사
부천	마인드 스쿨11	만화	김미영	2015	고릴라박스
	통조림 학원	동화	송미경	2016	스콜라
서울특별시 - 한도서관 한 책 읽기	나무도장	그림책	권윤덕	2016	평화를 품은집
	엄마냄새 참 좋다	만화	유승하	2014	창비
	우리 아빠는 택배 맨	동화	양지안	2016	낮은산
	잔소리 로봇	동화	김아로미	2015	파란정원
	감기걸린 물고기	그림책	박정섭	2016	사계절
	우리 가족 납치사건	그림책	김고은	2015	책읽는곰
김해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동화	박현경	2016	해와나무
순천	우리들의 짝조름한 여름 날	청소년소설	오채	2011	비룡소
	엄마 사용법	동화	김성진	2012	창비
원주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청소년소설	김중미	2016	낮은산

5) 2018년에 선정한 아동청소년도서

2018년에는 총 26개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도서를 선정하여 선정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동화 19편, 청소년소설 12편, 청소년교양서 2편, 그림책 2편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비슷하게 추천되던 청소년소설과 청소년교양서의 횟수는 청소년소설 『아몬드』가 8회 선정되면서 균형이 깨졌다.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선정되던 그림책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보인다.

[표 5] 2018년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

선정지역	아동청소년 선정도서	갈래	작가	출간 연도	출판사
공주	고작해야 364일	동화	황선미	2015	포북차일드
광양시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너는 그리고 나는 달린다	동화	박현경	2017	내인생의책
구미	김산하의 야생학교	교양	김산하	2016	갈라파고스
군포시	친절한 돼지 씨	동화	신정민	2015	바우솔
김해시	두 배로 카메라	동화	성현정	2017	비룡소
부산광역시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소년의 마음	동화	소복이	2017	사계절
부천시	분홍문의 기적	동화	강정연	2016	비룡소
	7년 동안의 잠	그림책	박완서 글 김세현 그림	2015	어린이작가 정신
서울관악구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악당이 사는 집	동화	이꽃님	2017	주니어 김영사
서울성북구	무적수첩	동화	김미애	2016	꿈초
	내일은 내일에게	청소년소설	김선영	2017	특별한서재
안산시	장 꼴찌와 서 반장	동화	송언	2017	잇츠북
	미치도록 가렵다	청소년소설	김선영	2014	자음과모음
양주시	알사탕	그림책	백희나	2017	책읽는곰
	눈물의 오디션	동화	한영미	2017	살림어린이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용인시	마법에 걸린 학교	동화	이향안	2017	현암주니어
울산광역시	닭 다섯 마리가 필요한 가족	동화	박현숙	2016	뜨인돌 어린이

선정지역	아동청소년 선정도서	갈래	작가	출간 연도	출판사
울주군	마법의 지팡이	동화	장세련	2017	푸른사상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원주시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의정부시	싸움의 달인	동화	김남중	2015	낮은산
익산시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인천 계양구	약당이 사는 집	동화	이꽃님	2017	주니어 김영사
	편의점 가는 기분	청소년소설	박영란	2016	창비
인천 미추홀	짜장면 더 주세요!	그림책	이혜란	2010	사계절
	모두 갇힌	청소년소설	김중미	2015	창비
인천 연수구	아몬드	청소년소설	손원평	2017	창비
청주시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동화	박현경	2016	해와나무
충주시	아니야 고양이	동화	임어진	2018	한림출판사
진천시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동화	소중애	2017	크레용 하우스
서울 마포구립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청소년교양	하지현	2017	창비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그림책	권정민	2016	보림
서울특별시 - 한도서관 한 책 읽기	곰 씨의 의자	그림책	노인경	2016	문학동네
	절대 딱지	동화	최은영	2016	개암나무

4.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결과 분석

1) 장르 인식의 대중성과 교육성

대중독서운동에서 ‘한 책’의 선정은 도서의 전문성,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학문적 또는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해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대중독서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반면 지나치게 대중성을 고려한 책 선정은 오히려 대중독서운동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²³ 작품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했을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선정도서의 장르별 선정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도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15~2018년 아동청소년 선정도서 장르별 현황

순위	장르	선정횟수		작품 수
1	한국 동화	51회	고학년 동화 20회 중학년 이하 동화 31회	49권
2	한국 청소년소설	28회		17권
3	한국 청소년교양서	18회		11권
4	한국 그림책	17회		16권
5	한국 만화	4회		4권
7	한국 어린이 교양서	1회		1권
8	한국 동시집	1회		1권
8	외국 청소년소설	1회		1권
합계		121회		100권

23 조찬식, 앞의 논문, 209-210면.

한 책 읽기운동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1회, 100권의 아동 청소년도서를 선정하였다. 해마다 선정지역의 수가 바뀌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도서와 성인도서를 각각 한권씩 선정하다가 한 권으로 통합하거나 선정분야를 폐지 혹은 반대로 신설하는 지역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광역시의 경우 ‘구’별로 선정 주체가 나뉘기에 시행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아동 청소년도서 선정 사업이 축소되는 이유는 예산문제인 경우가 많았다.

도서선정의 장르를 분석해보면 첫째 대부분 한국도서를 선정하였다. 외국 작품을 선정한 사례는 청소년소설 『기억전달자』가 유일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본문의 2장에서 언급한 ‘국내 작가를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을 따른 것으로 한국의 출판시장과 독자의 공감을 고려한 결과이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기준이지만 이 기준은 한국에서 실제 출간, 유통되는 상당수의 책은 배제됨으로 독자의 실제 독서환경과는 거리가 생길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 기준으로는 최근 청소년 대중 독자에게 인기가 높은 외국 영어덜트물이나 그래픽노블 등을 반영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아동도서 세부 장르를 보면 문학의 서사, 서정 장르 중 서사 장르인 동화의 선정비율이 월등히 높다. 동시는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고 독후활동에도 적합하며 최근 아동문학의 장에서 매우 발전적인 양상을 보이는 장르다. 하지만 동시 장르에서는 동시집 『글자 동물원』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선정위원들이 아동문학의 대표 장르를 동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장르의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²⁴

24 참고로 동화를 선택할 때는 성인도서와 달리 초등 저학년생과 고학년생의 이해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고학년 동화를 선정한 경우 저학년 생은 독서활동에 참여하기 힘들며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동화 장르를 학령으로 세분화 하여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시 ‘한 도

아동도서 장르 중 그림책 장르는 최근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총 17권이 선정되었다. 이는 그림책이 유아용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림책이 후속 행사용으로도 적절한 장르임을 파악한 것이다.²⁵ 그림책 장르는 서울에서 주로 선정되다가 점차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앞으로도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교양서 장르는 인물이야기인 『별을 사랑한 시인 윤동주』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구성은 동화로도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교양서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책은 사실상 거의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그림책 장르에서 『짜장면 더 주세요!』 같은 책은 지식정보 그림책이다. 그러나 선정도서에서 글 책으로 된 교양서는 전무하다. 즉 동시 장르와 어린이교양서는 선정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못했으며 이는 아동도서 장르에 대한 선정위원들의 기존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만화 장르는 실제로는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5권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화 장르’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선정도서는 ‘어른을 위한 만화’라는 소개가 붙은 『소년의 마음』(2018년 선정), 20대를 위한 만화라고 소개된 장애를 다룬 『나는 귀머거리다』(2016년 선정) 여성문제를 인권만화로 풀어낸 『엄마냄새 참 좋다』(2017년 선정) 등 청소년용으로 선정된 만화 3편과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편(2017년 선

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이 유일하다. 서울 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서는 일방적인 한 권의 책 선정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의 책을 선정한다. 이때 복수의 책은 아이들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책을 고를 수 있는 다양성도 넓혀주지만 학령에 따른 선택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대안이다.

25 2015년에는 『감자이웃』, 『위를 봐요』, 『달려 토토』, 『나무도장』, 2016년 『평화의 소녀상』, 『우리 집엔 할머니 한 마리가 산다』, 『슈퍼거북』, 2017년 『나는 나의 주인』, 『그 나무가 웃는다』, 『나무도장』, 『감기 걸린 물고기』, 『우리 가족 납치 사건』, 2018년 『알사탕』, 『짜장면 더 주세요!』,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곰 씨의 의자』가 선정되었으며 『7년 동안의 잠』은 2016년과 2018년 2회 선정되었다.

정)과 『마인드 스쿨』11편(2017년 선정) 같은 학습만화 2편으로 뚜렷하게 양분되어 대조를 보인다. 즉 청소년용 만화 세 편이 작품성과 장르적 대중성을 겸비한 만화라면 어린이 만화는 ‘교육’을 전제로 한 학습만화다. 어린이교양서가 한 권도 선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습만화가 선정된 사례로 볼 때 어린이를 위한 교양은 학습만화에 나오는 지식정보 차원이라고 판단하는 일반적 인식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학습만화 두 편은 모두 시리즈물로 이는 시리즈 전체가 선정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기에 시리즈도서의 선택, 특히 아직 완결되지 않은 시리즈를 선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도서도 적지 않게 선정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도서는 아동청소년도서와 성인도서를 분리하여 선정하는 지역과 통합하여 선정하는 지역 모두에서 추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책 한권만 선정할 경우 『시인 동주』와 같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읽을 수 있는 청소년도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도서의 경우 아동도서와는 달리 문학과 함께 교양서의 선정비율도 높다. 즉 청소년도서는 문학 뿐 아니라 비문학인 교양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상황과 비교할 때 선정위원들이 청소년의 교양이나 지식은 한층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한다.

참고로 청소년소설 장르에서 현재 출판계의 상황과 약간 거리가 있는 지점은 출판 시장에서는 장편소설과 함께 단편소설집의 출간 비율도 높은데 비하여 선정도서는 거의 장편소설에 치우쳐 있고 단편집은 1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수도 있으나 작가 한 사람의 단편집도 많으므로 실제 출판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정 과정에서 단편보다 장편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선정도서의 장르별 선정 상황을 검토해 보면 선정위원의 아동청소년도서 장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도서 선정에서 다양한 장르를 참신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대중적인 장르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라는 목적성도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2) 작가와 작품의 다양성과 편중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결과를 선정횟수로 보면 단일 작품으로는 『아몬드』(9회), 『시인동주』(8회), 『모두 껌언』(3회)이 가장 여러 번 선정되었다. 작가의 경우 김중미는 3회 선정된 『모두 껌언』 외에 『조커와 나』,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로 총 5회 선정되었으며 김선영은 『시간을 파는 상점』2회, 『내일은 내일에게』와 『미치도록 가렵다』가 각 1회 등 총 4회 선정되었다. 이 결과를 2014년 이전 결과와 통합하면 2014년 이전 가장 많이 선정된 황선미 작가가 2014년 이후에도 『고작해야 364일』,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나쁜 어린이표』,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등이 각 1회 씩 선정되어 전체 선정기간 중 가장 많은 횟수 선정되었다. 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여러 번 선정된 아동청소년 선정도서의 선정횟수와 작품 수이다.

[표 7] 2003~2018년 아동청소년 선정도서 선정횟수 및 작품 수

순위	작가	주요 작품	선정횟수	총 작품 수
1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외	22회	12권
2	김려령	완득이 외	15회	6권
3	이금이	너도 하늘말나리야 외	13회	6권
3	안소영	시인 동주 외	13회	2권
5	손원평	아몬드	9회	1권
6	유은실	멀쩡한 이유정 외	6회	6권
7	김중미	모두 껌언 외	5회	3권

성인 대상의 선정도서는 작품성이 낮은 가벼운 읽을거리가 선정되는 사례가 있어 아쉬움을 남기지만 아동청소년도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학적으로 인정받은 작품과 작가가 선정되어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위 순위에 올라 있는 작가 및 작품은 문학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동도서 중 동화 장르의 경우 순위로는 황선미나 이금이 작가가 상위에 올라 있지만 2015년 이후 작가와 작품의 면면을 보면 점차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동화가 선정된 횟수는 총 18회인데 선정된 작가는 16명이나 된다. 반면 2018년 청소년소설의 선정 횟수는 총 12회인데 선정된 작가는 4명에 불과하다. 2017년 창비출판사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손원평의 『아몬드』가 2018년 당시 집계만 하더라도 8회나 선정되었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작품 선정의 편중성은 한 책 읽기 운동에

26 2018년 선정된 동화는 총 18회이며 선정작가는 16명이다.(황선미, 신정민, 성현정, 강정연, 김미애, 송언, 한영미, 이향안, 박현숙, 장세련, 김남중, 임어진, 소중애, 최은영, 이꽃님 2회, 박현경 2회) 한편 2018년 선정된 청소년소설은 총 12회이며 선정작가는 4명이다.(박영란, 김중미, 손원평 8회, 김선영 2회)

내재된 대중지향성이 드러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중성은 『아몬드』가 작품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 청소년문학 전체적인 지형도에서 다른 청소년소설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청소년교양서에서도 안소영 작가는 2014년 이전 『책만 보는 바보』가 5회 선정도서가 되었으며 2015년 출간된 『시인 동주』도 총 8회나 선정되어 대표적인 선정도서 작가가 되었다.

청소년도서의 경우 선정도서가 소수의 작가나 작품에 집중되는 현상은 선정단계에서 동화보다 분량이 긴 청소년도서를 검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도서는 특히 출간되는 모든 도서를 검토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여러 매체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부터 읽고 그 작품이 마음에 들 경우 추천하는 순서를 따르게 된다. 그 결과로 선정도서목록을 보면 청소년소설은 출판사에서 문학상을 받은 작품과 수상 작가 중심으로 선정되는 양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도서는 선정과정 중에 직접적인 독서경험뿐 아니라 작가인지도, 판매 순위, 매체의 평가 등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미 호평을 받은 청소년도서 중심으로 선정 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지역 연고 작가가 추천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 프로그램이라는 특성 상 고려해볼 수 있는 선정기준이지만 이는 책 선정 범위를 제한시킬 여지가 있다. 또한 단순히 지역 작가를 안배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콘셉트’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유의미한 행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3) 도서선정의 주제 문제

이권우는 한 책 읽기운동이 그동안 독서운동에서 사용되었던 선정도서의 기준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한 책 읽기운동을 위한 선정도서는 작품성보다는 토론의 가능성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책 읽기라는 소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생산과정을 지향함으로써 독서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²⁷ 이런 시각은 토론의 수월성을 감안한 주제의식이 선명한 책과 이 운동의 취지를 살릴 공동체의 공동 선(善)을 토론할 수 있는 책을 선호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아동이 배워야 할 가치나 공동체 정신을 구현한 책 그리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는 책을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로 삼는 결과가 나타난다.

문학 작품에서 주제는 서사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즉 서사과정에서 주제가 설득력 있게 구현되었는지가 선명한 주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선정동화 중에는 다양한 주제로 문학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동화도 선정되었지만 한 책 읽기 운동의 공동체적 성격을 반영하는 주제도 적지 않다. 선정도서 중 교육적 목적이 뚜렷한 기획동화로는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동화 『나는 나의 주인』이 있고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삼은 동화로는 이웃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악당이 사는 집』, 『절대 딱지』, 장애를 주제로 한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나는 귀머거리다』, 『도토리 사용 설명서』,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득하는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학교에서 발행한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다룬 『어느 날 구

27 이권우,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의미: 읽고 토론하기의 힘에 대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한국도서관협회, 2003, 5-11면 참조.

두에게 생긴 일』, 다문화가정 이야기인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위안부 사건을 다룬 역사그림책 『평화의 소녀 상』 등이 있다. 주제의 선명성과 문학적 완결성의 관계를 두루 살펴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아동문학에 대한 비평적 시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제 중심의 책 선정은 책 선정결과 후 ‘책 토론’과 같은 한 책 읽기운동의 후속행사와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강조하는 주제의 동화 중 일부는 작품 속 사건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발생하기에 아동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쉽지 않다. 둘째 토론을 위한 책 선정에서 도서선정에 신 구간을 가리지 않는 미국과 달리 신간 위주로 선정하는 상황은 작품 선택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어 해당 주제관련 가장 적절한 책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 토론하기 좋은 책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격 상 토론이 일회적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깊이 있는 토론을 생산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동체 독서운동으로의 한 책 읽기운동의 정체성을 선정된 책의 주제로 확인하거나 토론 가능한 책으로 선정하는 작업과정에는 선정위원과 각계 전문가의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교양서의 경우 주제가 인문학 분야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 교양서는 『시인 동주』를 비롯해서 『멋지기 때문에 놀러 왔지』, 『박지원, 열하로 배낭여행을 떠나다』같은 문학 교양서, 『열일곱 살의 인생론』, 『10대, 지금의 고민이 널 성장시켜 줄 거야』,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공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같은 심리철학서 등의 주제가 선호된다. 이는 선정위원들이 인문학 서적을 교양서로

선호하는 시각을 반영한다. 과학 관련 교양서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와 『김산하의 야생학교』 두 권이며 청소년용 선정도서지만 두 권 모두 본래 청소년독자를 대상으로 출간된 책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현재 청소년 과학교양서가 출간되고 있음에도 아직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과 선정과정에서 과학을 주제로 한 책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교양서에서는 주제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4) 선정도서의 출간연도와 출판사의 문제

[표 8] 2015~2018년 선정도서의 출간연도

선정연도	선정도서의 출간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1999
2018	1	21	9	5	1				1
2017		3	13	9	2	1	2	1	2
2016				13	11	1	1	1	3
2015				2	10	1	3	5	3
합계	1	24	22	29	24	3	6	7	9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정된 도서의 출간연도는 도서를 선정하기 직전 해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한 책 읽기운동이 선정과정에서 신, 구간에 구별을 두지 않는 데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신간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첫째 책을 구하는 편리함 때문이다. 가령 아동청소년도서의 경우 절판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에 구간보다는 신간을 선호한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특징상 작품 속 내용이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신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한 책 읽기운동의 주요 취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간연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책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신간이 선정되지만 도서의 출간연도를 암묵적인 선정기준의 하나로 여기는 것은 구간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선정도서를 지난 해 출간된 ‘인기도서’로 인식하게 만들기에 다양한 책 검토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9] 2015~2018 아동청소년 선정도서의 출판사 선정횟수 분석

창비	사계절	문학동네	비룡소	자음과모음	낮은산	주니어김영사
34회	8회	8회	6회	5회	3회	3회

다음으로 출판사가 몇몇 출판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5권 이상 선정된 출판사는 창비, 문학동네, 사계절, 비룡소, 자음과모음 등이다. 특히 창비출판사는 『아몬드』와 『시인 동주』가 여러 회 선정되면서 34회로 선정횟수가 증가했다. 대중독서사업에서 ‘대중상’은 장르, 작품, 작가, 독자, 출판사 등 모든 다양성의 폭이 확대될수록 창의적인 결과가 생산된다. 선정도서가 몇몇 출판사에 집중되는 현상은 다양성을 지향해야 할 대중독서운동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고는 2018년 현재 전국 약 36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한 책 읽기운동

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주로 성인 독서 운동에 중점을 두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한 책 읽기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므로 도서의 선정 절차와 결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한 책 읽기운동의 대표적 특징인 대중성과 공동체 지향성이 도서 선정과 독서 환경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추적해 보았다.

도서 선정결과를 분석해보면 첫 째 아동도서 장르는 동화 위주로 선정되고 그림책 선정도 증가되는 추세다. 반면 동시와 교양서가 배제되며 대중장르인 만화의 경우 학습만화가 선정되는 등 아동도서 장르 전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드러난다. 청소년도서의 경우 문학과 함께 비문학인 교양서가 선호되어 교육으로의 목적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장르별 선정 추이를 통해 선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각 갈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작가와 작품의 선정횟수나 빈도로 볼 때 동화 장르는 2015년 이후부터 작가와 작품 모두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청소년도서는 문학과 교양서 모두 소수의 작가나 작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선정위원들이 동화에 견주어 분량이 긴 청소년도서를 검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 청소년도서의 집중 현상은 대중독서사업에서 지향해야 할 다양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한 책 읽기운동의 ‘함께 읽자’는 취지는 ‘주제의식’이 선명하거나 ‘토론’이 가능한 도서를 선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문학의 본래 기능은 교육적 기능과 함께 문학 본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선정도서 중에 문학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화도 적지 않으나 공동체 속 개인과 관계를 토론하기 위한 목적의 작품 선정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청소년교양

서의 경우 주로 주제가 인문학분야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선정도서의 출간연도를 확인한 결과 신간 위주로 선정함을 알 수 있었으며 출판사는 비교적 큰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 위주로 선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선택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한 문학 생태계를 만들려면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대중독서운동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대중 독자를 포함하는 독서운동이 문화적 관습, 문학적 해석이 세속화되면서 문학계에 침투한 상(prizes)과 쇼 비즈니스 심리가 영합한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또한 책 한 권에 대한 열광은 경쟁과 성공에 고착된 블록버스터 문화의 부산물이라는 비판도 한다.²⁸ 이러한 지적을 참고로 한 책 읽기운동을 발전시키려면 책 선정과정의 보다 진취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 책 읽기운동에서 촉발된 아동청소년도서 관련행사는 이제 전국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에 한 책 읽기운동의 방향 역시 중요하다.

한 책 읽기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독서문화도 많이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책 선택의 취향이 다양해졌고 소규모의 독서토론 모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모임 내용도 토론만이 아닌 낭독, 느낌나누기, 작품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한 권의 책’과 ‘대규모 행사’라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을 벗고 현재의 문화현상을 접목, 개편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 독서운동에서 ‘대중’의 의미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개인들’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한 책 읽기운동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며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보다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얻는 기회로 접근해야 독서 운동의 궁극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담

28 윤정옥 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조은글터, 2013, 272면.

보할 수 있는 책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 책 읽기 운동의 선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자의 시선으로 선정결과를 해석하려 노력했으나 사업의 전 과정을 두루 살피지 못하였다. 한 책 읽기운동의 아동 청소년 도서 선정 후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교육 현장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줄고를 계기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평론

- 김광모, 「한책 하나 구미 운동 :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로 거듭난 구미」, 월간 《공공정책》 127, 한국자치학회, 2016, 69-71면.
- 유윤희·김중성,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163-172면.
- _____,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309-336면.
- 이신애, 「어린이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려면」, 《창비어린이》2019년 봄호, 43면.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38(3),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45-66면.
- _____,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42(1), 한국문헌정보학회, 2008, 63-81면.
- _____,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한국문헌정보학회, 2012, 47-68면.
- _____,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4(3),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5-27면.
- _____,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171-194면.
- _____, 「한 권의 책’으로서 『앵무새 죽이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48(4),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115-133면.
- _____, 「한 권의 책’으로서 『화씨 451』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49(3),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185-208면.
- _____,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0년과 ‘한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한국문헌정보학회, 2017, 45-64면.
- 이권우,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의미: ’읽고 토론하기의 힘에 대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한국도서관협회, 2003, 5-11면.
- _____, 「토론,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2004년도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2004.
- 이용재,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14,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 121-143면.

- _____,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전략- 원북원 부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9(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247-265면.
- _____,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0(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9, 5-23면.
- 조찬식,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47(2),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201-221면.
- 최성일,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과 인천」, 《황해문화》45, 새얼문화재단, 2004, 370-375면.

2. 단행본

윤정옥 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조은글터, 2013.

3. 기타

- 양한우, 「공주시시립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 추진」, 《대전일보》, 2018년 2월 6일.
- 최예린, 박수혁, 오윤주, 「같은 책 읽고 시민 소통, ‘한 책 한 도시’운동 확산」, 《한겨레신문》, 2016년 3월 2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 독서인 홈페이지(www.readin.or.kr)
- 성북구립도서관 블로그 <https://sblib.tistory.com/654>
- 울주 통합도서관 누리집 <https://uljlib.ulju.ulsan.kr>
- 자치행정신문자치행정신문 블로그 <https://blog.naver.com/ddmnews64>

Abstract

An Analysis of Children's Books and Youth Books Selected
for 'One Book, One City' in Korea

Oh, Seran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results of the selection of children's book and youth books reading event of 'One book, One city in Korea', which is conducted in 36 regions as of 2018.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rity and community orientation and book selection process, which characteristics of a book reading movement.

First, fairy tales have been selected as the largest selection and the selection of picture books has been increasing. But children's verse and educational books were excluded. Youth books were preferred for literature and literary works, and educational purposes were revealed. Second, in terms of the number of selection for artist and works for the genre of the fairy tale are becoming diverse both in the artist and the work, and the juvenile novel and the literary book have concentrated on a few writers and works. Third, the purpose of the book reading movement is to provide a basis for selecting books that are strong in theme and can be discussed. The subject of youth literacy is biased toward the field of humanities.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book selection as year

of publication, new book and book from large publisher were selected.

■ key words : One book, One city in Korea, the selection of children's book and youth books, popularity, community orientation

■ 논문접수일: 2019. 4. 30.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

